

# 주간 통일정세

2016-43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0.23	北, 핵무기 소형화는 폭발력 10kt이하·개념설명 눈길(연합뉴스)
	10.24	교도 “북한 리수용,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연합뉴스)
		北, 지뢰도발 소재 연극에 “대결선동 모략극” 막말 비난(연합뉴스)
	10.25	北, 김정은 대량학살 예언한 역술인 등 40여명 체포(연합뉴스)
		北, 수해 민심 수습 나서나·전화기 컬러TV 제공(연합뉴스)
	10.26	北 리수용 베트남 방문·북핵 ‘제재탈파’·관계개선 행보할듯(연합뉴스)
		北, 월드컵 우승 女축구팀 대대적 환영·평양서 카퍼레이드(연합뉴스)
	10.27	北 김정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수입병 없애(연합뉴스)
올해 김정은 공개활동 100차례·수행 1위 조용원(연합뉴스)		
10.28	김정은 수해현장엔 안가고 북구 근로자에게 ‘감사만’(연합뉴스)	
경제	10.22	北 러 길목 中훈춘, 미래 대비 교통망 확충에 박차(연합뉴스)
	10.25	北 고려항공 취항국, 대북제재로 중 러 2곳만 남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가격 급등·북한 정권 자금줄 차단 노력 ‘무위’(연합뉴스)
	10.26	북중 3분기 교역액, 작년 대비 3.4% 증가·석탄수출도 5% 늘어(연합뉴스)
	10.28	독일 연구소, 北상선 9척 외국 국적 빌려 운항(연합뉴스)
북중국경공동위 개최로 2년째 연기된 신입록강대교 개통 기대감(연합뉴스)		
사회 문화	10.25	中 휴대전화 실명제로 北주민 외부소통 어려움(연합뉴스)
	10.26	北 휴대폰 324만대·100명당 13대 보유(연합뉴스)
외교 국방	10.22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66개국 제출·유엔 회원국 1/3(연합뉴스)
		산케이, 유니세프에 北공작원·유니세프 ‘공작원 여부 모른다’(연합뉴스)
		조선총련 과학자들, 북한에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연합뉴스)
	10.23	아시아 “北, 말레이 비공식대화서 美새정부 대북정책 모색”(연합뉴스)
		中 해커들, 남중국해 작전용 美 항모 겨냥 해킹 시도(연합뉴스)
	10.24	美정부, 북미 비공식 접촉에 “美정부와 무관한 일”(연합뉴스)
류전민 中 외교부 부부장 방북·대북제재 영향 주목(연합뉴스)		
北 유엔대표부 “제재결의는 불법문서” 억지(연합뉴스)		

	北 유엔의 날 맞아 “안보리는 미국의 꼭두각사” 역지(연합뉴스)
	[단독]北 대남조직에 ‘갯글전담팀 운영’...사이버심리전 혈인(연합뉴스)
10.25	美육해공 장관 美 정권교체기 北위협 철저히 대비해야(연합뉴스) 북미접촉 참여 미디트라니, 9·19성명 복귀 北의사 타진했다(연합뉴스) 北 “美 개발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겨냥한 것” 주장(연합뉴스) 중국, 류전민 국경 문제 논의차 방북...북핵 언급 없어(연합뉴스) 방북 류전민, 中 참전기념일 맞아 북중우의탑에 헌화(연합뉴스) 일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검토...中기업 겨냥(연합뉴스) 러 극장들 北 비판 기록영화 상영 거부...러 당국 지시(연합뉴스)
10.26	미국무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정책변화 없다(연합뉴스) 美DNI 국장 “北 핵포기 가능성 없어...핵능력 제한이 최선” 파장(연합뉴스) 中 “北과 국경문제 등 논의 마쳐”...북핵 거론 여부 언급 안해(연합뉴스) 北, ‘북한 금융기관 폐쇄’ 권고한 자금세탁방지기구 비난(연합뉴스) [단독]北 20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실패 때 발사차량도 불탔다(연합뉴스)
10.27	中단둥, 北겨냥 ‘국제통상도시’ 도약 비전...대북제재에 ‘역행’(연합뉴스) 中 류전민, 나흘간의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평북서 발사한 미사일 본토 타격 ICBM일 수도”(연합뉴스)
10.28	北매체 “美 대북제재, 인민 생존권 통째로 강탈” 비난(연합뉴스) 블링컨, 北위협 계속되면 사드 이외 추가조치 가능(연합뉴스) 김정은, 무수단 발사 실패 원인규명 특별조사팀 꾸려(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10. 27.

##### ■ 北 김정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수입병 없애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조선 로동(노동) 계급의 자존심과 배짱으로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냈으므로 수입병(病)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 버리고 민족의 슬기와 조국의 명예를 빛내여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은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난 25일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직업동맹)조직들의 과업’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정은은 직업동맹원들에게 ‘자강력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주문함.

##### ■ 올해 김정은 공개활동 100차례...수행 1위 조용원(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100차례 공개활동을 했으며,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것으로 27일 집계됨.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료와 연합뉴스의 북한매체 보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은 올해 들어 지난 18일 류경안과중합병원(보도시점 기준) 현지지도까지 100차례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됨.
- 김정은을 수행한 인사를 보면 조용원 당 부부장이 42차례로 가장 많았음. 조 부부장은 지난해에도 43회 김정은을 수행해 북한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79회)에 이은 2위를 기록함. 황 총정치국장은 올해는 현재까지 조용원에 크게 못 미치는 23차례 수행에 그침.

2016. 10. 28.

##### ■ 김정은 수해현장엔 안가고 복구 공로자에게 ‘감사’만(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수해 복구 과정에서 위훈을 세운 군부대와 기관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북부 피해지역 복구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 여성철소속부대, 권영학소속부대 장병들과 922건설돌격대, 인민보

안성 여단의 전투원들, 철도성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육해운성의 정무원들과 수송전사들, 돌격대원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일꾼들, 경흥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고 전함.

- 이어 “감사를 받아 안은 인민군 장병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은 함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충정의 200일 전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주체조선의 백승의 기상, 영웅적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쳐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다”고 밝힘.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0. 24.

### ■ 교도 “북한 리수용,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24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차 항공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이 부위원장은 베트남에서 공산당과 노동당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고위 관료와 양국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2016. 10. 26.

### ■ 北 리수용 베트남 방문…북핵 ‘제재탈피’·관계개선 행보할듯(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세계 공산당 회의 참석차 26일 베트남을 방문함.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덜기 위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임.
- 리 부위원장은 세계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 직후 인도네시아를 방문, 현지 고위관료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다. 공식행사

###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0. 25.

■ **北, 김정은 대량학살 예언한 역술인 등 40여명 체포(연합뉴스)**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성)가 최근 홍수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폭압 정치로 대량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역술인 등 주민 40여 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이 최근 큰물(홍수)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2017년 김정은의 대량학살 등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점쟁이 4명과 이를 유포한 주민 40여 명을 불온분자로 규정해 긴급 체포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어 “현재 두만강 지역엔 국가안전보위성 검열대가 투입돼 조금이라도 수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도 안전보위국 감옥에 가둔다”면서 “미신행위 이외에도 최근 한국행을 기도한 주민과 도박, 마약을 한 주민 등 300여 명도 잡아들였다”고 설명함.

■ **北, 수해 민심 수습 나서나...전화기 컬러TV 제공說(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수해 지역 주민들의 살림집 입주 시기에 맞춰 피해 주민들에게 각종 전자제품을 선물하려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 소식통은 25일 북한전문 매체인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수해지역 살림집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이달 말부터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맞춰 (당국이) 입주 세대들에 유선전화기와 색(컬러) 텔레비전을 포함한 살림살이를 갖춰 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함.
-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 2달 넘도록 수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각종 선물로 ‘애민 정치’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함.

2016. 10. 26.

■ **北, 월드컵 우승 女축구팀 대대적 환영...평양서 카퍼레이드(연합뉴스)**

- 북한이 17세 이하(U-17) 여자축구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뒤 25일 귀국한 대표팀 선수들을 위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마련함.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조국의 장한 딸들을 맞이하는 수도 평양은 뜨거운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휩싸여) 있었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선수들의 가족들과 청년학생들, 체육인들이 손에 손에 꽃다발을 들고나와 있었다”고 보도함.

-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자 김영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룡남 내각 부총리, 리중무 체육상, 김장산 축구연맹 제1부위원장 등이 선수들을 맞이했다고 이들 매체는 덧붙였다.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0. 23.

### ■ 北, 핵무기 소형화는 폭발력 10kt이하..개념설명 눈길(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다중화 등의 개념을 규정하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핵무기를 소형화한다는 것은 핵탄의 폭발력이 10kt(1kt은 TNT 1천의 폭발력) 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의 작전전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유익하다”며 “핵무기의 폭발력이 클수록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전선과 후방, 적아 쌍방 간에 엄격한 계선이 없이 립체적(입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이러한 무기를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함. 아울러 “군사적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면 여러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을 핵무기의 다중화라고 한다고 서술함.

2016. 10. 24.

### ■ 北, 지뢰도발 소재 연극에 “대결선동 모략극” 막말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다룬 연극 공연에 대해 남북 간 대결을 선동하기 위한 “반공화국 모략극”이라며 막말 비난을 퍼부었음.
- 하지만 주최 측은 당시 부상한 군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순수 민간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정부 지원설’을 부인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 이에 대해 연극을 기획한 최일화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은 “연극을 통해 아픔을 보듬어 주겠다는 부상 병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극 무대를 준비했다”면서 “부상한 병사들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인간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0. 22.

- **北·러 길목 中훈춘, 미래 대비 교통망 확충에 박차(연합뉴스)**

-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되는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가 북중접경의 교통인프라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북한의 개혁개방과 러시아 극동 개발에 염두에 두고 훈춘시를 3국 교역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임.
- 연변일보는 “훈춘시가 대외개방·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접경지역 도로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민간 및 사회자본 유치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2016. 10. 25.

- **北 고려항공 취항국, 대북제재로 중·러 2곳만 남아(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고려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만 남게 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VOA는 지난 8월 고려항공이 중국 북서부의 우루무치(烏魯木齊)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했지만, 쿠웨이트 당국이 입항을 막는 바람에 현재 이 노선은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함.
- 이처럼 고려항공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현재 이 착륙할 수 있는 나라는 기존 5개 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곳만 남게 됐다고 VOA는 설명함.

■ **북한산 석탄 가격 급등…북한 정권 자금줄 차단 노력 ‘무위’(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산 석탄 가격의 급등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특히 북한은 인접한 우방 중국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을 팔고 있으며 매출 또한 유례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의 석탄(무연탄) 가격은 8월 초까지만 해도 t당 59달러(약 6만9천 원)였으나 이번 주에는 99달러로 급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상하이 금융정보제공업체 ‘윈드 인포메이션’(Wind Information)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불과 3개월 사이에 68%나 오름.

2016. 10. 26.

■ **북중 3분기 교역액, 작년 대비 3.4% 증가…석탄수출도 5% 늘어(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의 교역은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올해 3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5억5천만 달러(1조7천569억 원)로 작년 동기(15억 달러) 대비 약 3.4% 증가했다고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함.
- 올해 3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총 7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6%, 수입액은 8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2% 늘어남.

2016. 10. 28.

■ **독일 연구소, 北상선 9척 외국 국적 빌려 운항(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선박이 외국 국적을 빌려 여전히 운항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독일의 선박 운항 전문 연구기관인 ISL(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은 전자우편을 통해 RFA에 “어선과 군함 등을 제외한 300t급 이상의 북한 상선 가운데 9척이 외국 국기를 달고 있다”고 전함.
- 지난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 2270호는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빌려 운항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 북중국경공동위 개최로 2년째 연기된 신압록강대교 개통 기대감(연합뉴스)

- 북중 경협을 상징으로 신의주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연결한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만 2년째 연기된 가운데 최근 열린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개통될지에 관심이 쏠림.
- 북중접경 소식통들은 지난 25~26일 평양에서 열린 국경공동위 3차 회의에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필두로 중국대표단이 북한대표단을 만나 새 국경 다리 건설을 논의하는 한편 이미 건설된 신압록강대교 개통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밝힘.
- 또다른 소식통은 “당초 신압록강대교를 현재의 위치보다 수km 상류에 있는 위화도 부근에 건설해 북한의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원했으나 중국이 자체 계획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자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풀이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6. 10. 25.

### ■ 中 휴대전화 실명제로 北주민 외부소통 어려움(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휴대전화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소통하던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중국 변경도시의 한 소식통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북한 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통신제한 조치를 당할 상황에 처했다고 최근 RFA에 밝힘.

-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실명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중국 변경도시 소식통은 RFA에 전함.

2016. 10. 26.

■ **北 휴대폰 324만대...100명당 13대 보유(연합뉴스)**

-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기 지난해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CIA는 최근 갱신한 북한 현황자료(Fact book)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기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한다”면서 “북한 인구 100명당 13대를 사용하며 규모 면에서 조사대상 217개 나라 가운데 142위 해당한다”고 밝힘.
-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우 5천893만 대가 보급돼 인구 100명당 120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20배가량 차이를 보임.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10. 23.

■ **아사히 “北, 말레이 비공식대화서 美새정부 대북정책 모색”(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난 21~22일 열린 북미 간 비공식 대화에서 북한 측은 내년 출범하는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이 23일 보도함.
- 신문은 비공식 대화에서 북한이 안보상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언 시걸 미국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은 미국 새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의향을 보였다고 전함.
- 신문은 북한이 지난 7월 미국과 모든 외교적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이에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 10. 24.

■ **美정부, 북미 비공식 접촉에 “美정부와 무관한 일”(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의 현직 인사들과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비공개 접촉을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힘.

- 미 국무부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북미 접촉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메일을 통해 “트랙2 회의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면서 이같이 답변함.
- 지난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 대화에는 북한에선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등 현직 관리 5명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등 전직 관리와 민간 전문가들이 나왔음.

2016. 10. 25.

■ **美육해공 장관, 美 정권교체기 北위협 철저히 대비해야(연합뉴스)**

- 미국 대선과 차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육·해·공군 장관들이 정권 교체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냄.
- 미국 싱크탱크 ‘신(新)미국안보센터’(CNAS)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좌담회 ‘3군 장관과의 대화’에서임. 3군 장관은 북한 사태의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함.
- 레이 메이버스 해군 장관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모든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해병대 구호처럼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오늘 밤이라도 싸워서 이긴다) 정신으로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함.

■ **북미접촉 참여 美디트라니, 9·19성명 복귀 北의사 타진했다(연합뉴스)**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북미 간 ‘트랙 2’(비공식) 접촉에 참여했던 전직 미 당국자가 북측에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힘.
-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춘 탐색적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25일 이 방송이 보도함.
- 앞서 지난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북미 비공식 대화에는 북한에선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등 현직 관리 5명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디트라니 전 대표 등 전직 관리와 민간 전문가들이 나왔음.

■ **北 “美 개발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겨냥한 것”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철두철미 우리를 겨냥한 것”이

라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미 공군은 1시간 내에 세계의 그 어떤 목표도 타격할 수 있는 일명 로켓 추진 활공기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다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록히드 마틴은 최근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미 공군이 추진하는 전술 부스트 글라이더(Tactical Boost Glide, TBG) 계획의 사업자로 선정돼 1억7천100만 달러(약 1천938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힘. 최소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하는 TBG는 화살촉 모양의 공격용 미사일임.

2016. 10. 26.

■ **미국무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정책변화 없다(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이며, 이 정책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힘.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이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 데 대한 공식 반응임.
- 커비 대변인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우리의 정책목표는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강조함.

■ **美DNI 국장 “北 핵포기 가능성 없어…핵능력 제한이 최선” 파장(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함.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큰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힘.
-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면서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단언함.

2016. 10. 28.

■ **北매체 “美 대북제재, 인민 생존권 통째로 강탈”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통째로 강탈하는 가장 잔인하고 비렬한(비열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벌이는)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진실을 해부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여 스스로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도록 몰아가 보려는데 비렬하고 더러운 속심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한편 노동신문은 “우리는 누구든지 높낮이가 같은 결상에 앉아 문제를 풀자면 기꺼이 손을 내밀 것이지만, 저들의 패권적 지위를 등대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제재니 뭐니 하고 오만방자하게 날뛰다면 우리 식의 강력한 대응방식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도 공언함.

■ **블링컨, 北위협 계속되면 사드 이외 추가조치 가능(연합뉴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8일 “만약 북한의 위협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그(사드) 이외 추가적인 조치(such more steps)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는 이날 서울대국제대학원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함.
- 블링컨 부장관은 그러면서 “때때로 이런 조치들은 사드처럼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데도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임.

나. 북·중 관계

2016. 10. 24.

■ **류진민 中 외교부 부부장 방북…대북제재 영향 주목(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가 24일 북한을 전격 방문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중(북한-중국)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할 류진민(류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짧게 보도함.
- 중국 고위 관료의 방북 사실이 알려진 것은 올해 2월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이어 8개월 여 만이며 5차 핵실험 이후로는 처음임. 또 류 부부장이 북한을 찾은 것은 남북한을 연쇄적으로 방문했던 지난 2014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임.

## 2016. 10. 25.

### ■ 중국, 류전민 국경 문제 논의차 방북...북핵 언급 없어(연합뉴스)

- 중국은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24일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확인했으나 북한 핵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최종 조율하고 있어 이번 방문 기간에 북핵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류전민 부부장이 방북 기간 북한 핵 문제에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류전민 부부장이 중조(북한-중국)국경공동위원회 중국측 수석대표로 24일부터 27일까지 대표단을 인솔해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고만 밝힘.

### ■ 방북 류전민, 中 참전기념일 맞아 북중우의탑에 헌화(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 중인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25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6주년을 맞아 평양의 북중 우의탑에 화환을 바쳤다고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6돌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進呈)되었다”며 류 부부장 일행이 ‘중국 대표단’ 명의로 화환을 바쳤다고 보도함.
- 북중 관계는 올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급랭했지만, 이달 초 중국의 건국 67주년 기념일(국경절)을 맞아 양측이 잇따라 기념행사를 여는 등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6. 10. 26.

### ■ 中 “北과 국경문제 등 논의 마쳐”...북핵 거론 여부 언급 안해(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 평양을 방문 중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26일까지 이틀간 북한과 국경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 핵 문제를 거론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과 북한이 국경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함.

-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회의에는 지난 24일 북한을 방문한 류 부부장과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롯해 양측 공안과 환경보호, 교통, 수자원, 국방, 항구 등 부문 관리가 참가함.

2016. 10. 27.

■ **中 단둥, 北겨냥 '국제통상도시' 도약 비전...대북제재에 '역행'(연합뉴스)**

- 압록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국제통상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해 주목됨.
-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단둥시의 이런 비전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옴. 단둥시는 북·중 교역량의 70%가량이 오가는 곳임.
- 단둥뉴스망은 “단둥의 개발개방이 동북 접경지역 발전의 시험장 역할을 하고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협력을 넓히고 대외무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中 류진민, 나흘간의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연합뉴스)**

- 류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나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대표단은 체류 기간 국제친선전람관과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채소)전문협동농장, 평양중등학원을 참관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힘.
-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경 관리 제도 협정의 이행 상황 점검, 국경 지역 법 집행과 관리·통제, 국경 통과를 위한 기반시설, 국경 지역 내 협력, 항구 개방 등 업무에 대해 양측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함.

다. 북·일 관계

2016. 10. 25.

■ **일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검토...중기업 겨냥(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가는 데 관여하는 제3국의 북한 거래

- 기업, 북한 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독자 제재 시점과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교도는 전함.

## 라. 북·러 관계

2016. 10. 25.

### ■ 러 극장들 北 비판 기록영화 상영 거부…러 당국 지시(연합뉴스)

- 러시아의 유명 기록영화 감독 비탈리 만스키가 제작한, 북한 현실을 다룬 기록 영화 ‘태양 아래서’가 모스크바 내 여러 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하게 됨.
- 25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태양 아래서’를 27일부터 상영키로 했던 8개 모스크바 극장이 갑자기 상영 취소 결정을 내렸음. 한 극장은 모스크바시 문화국의 지시로 상영을 취소했다고 밝힘.
- 만스키 감독은 모스크바 극장들의 상영 취소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호응한 결과”라고 비난함.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0. 22.

### ■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66개국 제출…유엔 회원국 1/3(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에 대해 66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 위원회 의장을 맡은 유엔주재 스페인대표부는 20일(현지시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66개 나라”라고 밝힘.
-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늘어난 데 대해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 ■ 산케이, 유니세프에 北공직원…유니세프 ‘공직원 여부 모른다’(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대외첩보기관인 정찰총국의 남성 공직원이 신분을 감추고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반도 관계자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신문은 “이러한 채용은 북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함.

- 신문은 한반도 관계자가 파악한 전 북한 고위관료의 증언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의 남성이 “유니세프의 솔로몬제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정찰총국의 전신인 북한 노동당 35호실에 소속됐던 이 공작원은 2000년대 이후 몽골, 피지에서 유니세프 직원 등으로 활동, 각국 요인의 포섭공작이나 군사정보 수집을 했다”고 보도함.

2016. 10. 24.

■ **北 유엔대표부 “제재결의는 불법문서” 억지(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과거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들이 미국의 강권에 따라 조작된 불법문서라고 비난함.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유엔 사무국과 각국 대표부, 취재진 등에 배포한 공보문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사회)가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강압 채택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조작된 '제재결의'들은 유엔 현장과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강권에 따라 조작된 비법적(불법적) 문서장들”이라고 주장함.
- 공보문은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기초에 대하여 해명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유엔사무국은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에는 유엔 성원국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들을 접수할 수도 리행할(이행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궤변을 이어감.

■ **北, 유엔의 날 맞아 “안보리는 미국의 꼭두각시” 억지(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의 날(24일)을 맞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유엔 개혁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몇몇 나라들로 구성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자기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나고 있다”고 황당한 논리를 전개함.
- 신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눌려) 미국의 세계 패 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 있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미국이 상임 이사국으로(이사국으로) 있는 한 이 기구는 평화 보장은 커녕 오히려 평화 파괴와 유린을 불러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더욱 도용될 것”이라고 대미 공세를 퍼부었음.

2016. 10. 26.

■ 北, '북한 금융기관 폐쇄' 권고한 자금세탁방지기구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26일 회원국들에 북한 금융기관의 폐쇄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비난함. 북한의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일관된 이번 공개성명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의 일환으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기구활동의 ‘보편성’과 ‘공정성’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유엔 안보리사회(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들을 국제적 기준으로 만들어 성원국(회원국)들에 강압적으로 내려 먹이고 있는 것”이라고 역지를 부림.
- 이어 “유엔 안보리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규범들을 무시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비법적(불법적)인 문서들이며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0. 22.

■ 조선총련 과학자들, 북한에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소속 과학자들이 북한에 컴퓨터수치제어(CNC) 등의 기술을 제공해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일본의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 가토 겐 대표는 “일본 내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과학자들이 북한에 컴퓨터수치제어장치 등의 기술을 제공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의료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기술 지원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이와 관련,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수출 금지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유엔의 제재 목록은 보다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히 대북 기술을 지원하는 나라와 개인들이 관련 제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2016. 10. 23.

■ **中 해커들, 남중국해 작전용 美 항모 겨냥 해킹 시도(연합뉴스)**

- 중국 해커들이 자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7월 11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방문하기로 한 각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음.
-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FireEye)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함.
- 클레이 도스 미 태평양함대 대변인은 “네트워크에 취약함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중요 작전을 시행하는 해군 네트워크의 완전성을 신뢰한다”고 말함.

2016. 10. 24.

■ **[단독]北, 대남조직에 ‘댓글전담팀’ 운영…사이버심리전 혈안(연합뉴스)**

- 북한이 대남조직에 소속돼 사이버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전담팀까지 운영하면서 ‘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심리전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는 24일 “북한은 군(軍) 정찰총국, 당(黨)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조선 6·15편집사 등의 (대남) 조직에서 국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괴담과 유언비어를 인터넷, SNS에 ‘퍼 나르기 식’으로 재유포하는 ‘댓글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과거처럼 간첩을 보내고 공작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도 있다”며 “그래서 사이버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고, 효과도 있다.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도 용이하다”고 밝힘.

2016. 10. 26.

■ **[단독]北 20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실패 때 발사차량도 불탔다(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일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 차량(TEL)에서 점화된 직후 폭발해 발사 차량까지 시커멓게 태웠던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지난 20일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1발은 발사 차량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폭발했으며 이 폭발로 발사

차량까지 시커멓게 타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정부 소식통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 탄두부의 모양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탄두 중량에 의한 과부하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어떻게든 비행능력과 미사일 성능을 입증해 보이려고 심하게 뒤통을 치는 것도 연속 실패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6. 10. 27.

■ **美전문가 “北, 평북서 발사한 미사일 본토 타격 ICBM일 수도”(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들어 평안북도 구성 방현비행장에서 두 번 시도했던 미사일 발사 시험에 중거리 '무수단'이 아닌 장거리 'KN-08'을 동원했을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됨.
- 2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담당국장이 방현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함.
- 루이스 국장은 방현비행장 위성사진에서 미사일 시험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불탄 흔적이 두 곳에서 발견됐고, 이들 흔적의 크기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무수단 미사일 발사 흔적보다 훨씬 컸다며 KN-08의 발사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설명함.

2016. 10. 28.

■ **김정은, 무수단 발사 실패 원인규명 특별조사팀 꾸려(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8차례 발사한 무수단(화성-10호) 중거리 미사일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국방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됨.
-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에서 북한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특별조사팀이 국방 분야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주장함.
- 지난 20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1발의 경우 발사 차량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폭발했으며 이 폭발로 발사 차량까지 시커멓게 타버린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함.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0.22		미국무부 블링컨 부장관 28일 방한·대북 정책 등 협의(연합뉴스)
	10.24		국방부 “美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확장 억제 강화할 것”(연합뉴스)
	10.25		블링컨 미국무부 부장관, 한·중·일 릴레이 방문·북핵 논의(연합뉴스)
	10.26	한미일 외교차관 내일 도쿄서 대북조율·북중대화 맞물려 주목(연합뉴스)	
		한미 외교차관 “북핵, 미국에도 직접 위협·체제 강화”(연합뉴스)	
	10.27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서 회동·대북 제재강화 논의(연합뉴스)	
		한미 공군 특수부대, 군산기지에서 北내륙 침투훈련(연합뉴스)	
	10.28	조태용-블링컨, 오후 한미전략협의·대북제재 강화 조율(연합뉴스)	
북미접촉 결론은 北대화의지 없다는것·결국 대화 동력은 제재(연합뉴스)			
美정부, 클래퍼 DNI국장 발언에 화들짝·비핵화 목표 변함없다(연합뉴스)			
			美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위협속 양국 협력 강화에 기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27	정부, 中-北 임시부교 설치에 안보리 결의 이행 강조(연합뉴스)	
		한미일, 中항해 ‘대북제재 강화 꺾기대회’·블링컨 방중 주목(연합뉴스)	
	10.28	정부, 中에도 군사정보협정 체결 제안·대북정보 정확성 도움(연합뉴스)	
		한중일 통상장관, FTA 협상 가속화 방안 모색(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0.22	아시아신문 “한일, 이달말 사이버분야 당국자 협의 첫 개최”(연합뉴스)	
	10.25		日, 그 끝없는 억자·도쿄 메트로에 ‘독도는 일본땅’ 지도(연합뉴스)
	10.26	한일, 28일 북한발 사이버공격 대응 첫 양자협의(연합뉴스)	
한일 외교차관, 북핵에 전방위 제재·압박 강화로 대응(연합뉴스)			

	10.27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연내 체결 목표(연합뉴스)	日 관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 기체결 목표(연합뉴스)
	10.28		아사히 "韓, 군사정보보호협정 11월 체결 목표...韓 여론 중요"(연합뉴스)
		한일 첫 사이버정책협의회...북한발 해킹 대응 공조(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한국</b>	<b>러시아</b>
한러 관계	10.26	모스크바서 '한-러 정경포럼'...북핵 해결방안 두고 열띤 논쟁(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b>분류</b>	<b>일자</b>	<b>미국</b>	<b>중국</b>
미중 관계		10.22	美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재개...中 "불법·도발" 반발(연합뉴스)	
		10.24		中, 美본토 위협 3세대 핵잠수함 건조중... 2년후 실전배치(연합뉴스)
		10.25	미·중 이반주 '전략 안전 대화'...북핵·남중국해 논의(연합뉴스)	
		10.26		중국, 美국가정보국장 발언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 변함없어"(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미국</b>	<b>일본</b>	
미일 관계	10.25	美 해군, F-35B기 탑재 상륙 강습함 내년 일본 배치(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미국</b>	<b>러시아</b>
미러 관계		10.23		英 일간 "러, 美 대선까지 대미외교 중단 결정 내렸다"(연합뉴스)
		10.27		러, 신냉전 상황서 차세대 ICBM 첫 공개...美 MD 무력화(연합뉴스)
		10.28		푸틴, 시리아사태 해결 위한 오바마와의 개인적 합의 무산 유감(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10.23			산케이 "日, 위안부 소녀상 설치된 곳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10.27			日과 정상회담 앞둔 러시아, 18조원 넘는 경제협력 요청(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10. 22.

##### ■ 미국무부 블링컨 부장관 28일 방한…대북정책 등 협의(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대북정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 국무부는 블링컨 부장관이 방한 기간에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간 전략적 조율 방안과 함께 북한의 불안 야기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 회의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한국 대표로, 스키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이 일본 대표로 각각 참여할 예정임.

2016. 10. 24.

##### ■ 국방부 “美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확장억제 강화할 것”(연합뉴스)

- 국방부는 24일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양국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원론적으로 볼 때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함.
- 문 대변인은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 상공, 해역에 미국의 공중·수상·수중 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즉각 이행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함.

2016. 10. 25.

##### ■ 블링컨 미국무부 부장관, 한·중·일 릴레이 방문…북핵 논의(연합뉴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해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함.

-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블링컨 부장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중국도 찾을 계획이라고 밝힘.
- 국무부는 “블링컨 부장관과 장 부부장이 제3차 전략안보대화 중간점검 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와 해양(영유권 분쟁) 이슈를 포함해 양국 간 전략안보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함.

2016. 10. 26.

■ **한미일 외교차관 내일 도쿄서 대북조율…북중대화 맞물려 주목(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추가도발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힘.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함.
-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 1월(도쿄), 4월(서울), 7월(미국 호놀룰루)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임.

■ **한미 외교차관 “북핵, 미국에도 직접 위협…제재 강화”(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협의에서 양국 간 긴밀한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만 두 차례 핵실험과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연쇄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임.

2016. 10. 27.

■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서 회동…대북 제재강화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오전 일본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외교차관협의를 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추가 도발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협의에서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도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해짐.

- 아울러 각국별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짐.

#### ■ 한미 공군 특수부대, 군산기지서 北내륙 침투훈련(연합뉴스)

- 적지 침투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미 공군 특수부대가 최근 한국에서 우리 공군 특수부대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해 내륙 지역에 침투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27일 “미 공군 353 특수작전단이 최근 군산기지서 우리 공군의 침투작전 부대인 공정통제사(CCT) 요원들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은 북한 핵심시설 파괴를 위한 내륙 침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2016. 10. 28.

#### ■ 조태용-블링컨, 오후 한미전략협의…대북제재 강화 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8일 외교라인의 핵심 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 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함.
-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힘.
- 블링컨 부장관은 2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미국으로서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을 둔 확장억제를 통해서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함.

#### ■ 북미접촉 결론은 北대화희지 없다는것…결국 대화 동력은 제재(연합뉴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이른바 ‘북한 핵포기 불가 및 핵동결 최선’ 언급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함.
-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미 국무부가 ‘그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미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힘.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4일 정레브리핑에서 “트랙2 대화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 6자회담 테이블에 참여할 의사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북한에 있는데 북한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美정부, 클래퍼 DNI국장 발언에 화들짝...비핵화 목표 변함없다(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이른바 ‘북한 핵포기 불가-핵 능력 제한 최선’ 발언에 화들짝 놀라 긴급 진화에 나선.
-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내놨음.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클래퍼 국장 발언의 진의를 묻는 말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 정부의 현 대북 전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클래퍼 국장이 언급한 것”이라고 말함.

■ **美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위협속 양국 협력 강화에 기여”(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힘.
-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한일 양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발표 소식을 접해 알고 있다”면서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함.
-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나. 한·중 관계

2016. 10. 27.

■ **정부, 中-北 임시부교 설치에 안보리 결의 이행 강조(연합뉴스)**

- 정부는 27일 중국이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겠다고 사전 통보해왔으며, 이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이날 “지난 8월 말~9월 초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중국 측이 중북 접경 두만강 지역에 임시 부교를 설치할 예정임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온 바 있다”고 밝힘.

-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구호물자와 복구 물자를 다량으로 긴급히 요구해왔는데 북중 변경의 다리가 수해로 심하게 훼손돼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됐다”며 “북한 측 요청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북중 접경에 임시 부교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 한미일, 中향해 ‘대북제재 강화 쉼기대회’…블링컨 방중 주목(연합뉴스)

- “미국과 동맹국들(한일)이 한자리에 모여 ‘쉼기대회’를 한 번 한 것이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대해 이같이 총평하며 이번 협의에 고강도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재촉’ 또는 ‘압박’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함.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제재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2016. 10. 28.

#### ■ 정부, 中에도 군사정보협정 체결 제안…대북정보 정확성 도움(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반응은 아직 없으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불만 등으로 난색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해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면서 “이번 제안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힘.

#### ■ 한중일 통상장관, FTA 협상 가속화 방안 모색(연합뉴스)

- 한·중·일 통상장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통상 협력 강화에 나섬.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일본 도쿄 메구로 가조엔 호텔에서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힘.
- 이 회의는 2002년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세코우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함.

## 다. 한·일 관계

2016. 10. 22.

■ **아사히신문 “한일, 이달말 사이버분야 당국자 협의 첫 개최”(연합뉴스)**

- 한일 정부가 “이달 말 사이버 분야에서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당국자 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함.
- 2014년 10월에 한중일이 참가하는 제1차 3국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중국에서 개최된 적은 있지만 “한일 양국 차원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함.
- 한일 외교 당국자가 참석하는 사이버 분야 협의에서는 정부와 생활 인프라 등 중요정보를 보유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관계국과의 협력상황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고 신문은 덧붙임.

2016. 10. 25.

■ **日, 그 끝없는 억지…도쿄 메트로에 ‘독도는 일본땅’ 지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도쿄 메트로(1~9호선)의 모든 역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짐.
-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도쿄 여행객들로부터 이메일과 SNS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직접 도쿄 시내 지하철역을 방문한 결과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한 지도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힘.
- 지도는 대형 포스터 형태로 제작됐다. ‘아십니까, 일본의 모양이라는 제목 아래 독도뿐 아니라 북방 영토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2016. 10. 26.

■ **한일, 28일 북한발 사이버공격 대응 첫 양자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오는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열어 북한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함.
- 협의회에서는 양국 외교부와 군, 수사기관, 정보통신 분야 등의 사이버 안보 당국자들이 북한발 사이버 공격 위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정부 소식통이 26일 전함.
- 이번 한일 간 사이버 안보 협의는 지난해 12월 군 위안부 합의 도출 이후의 양국 정부 간 외교·안보 분야 공조 흐름 속에 성사된 것으로 풀이됨.

■ **한일 외교차관, 북핵에 전방위 제재·압박 강화로 대응(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26일 도쿄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열고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27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뜻을 같이함.
- 임 차관은 회담 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차관 등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예방함.

2016. 10. 27.

■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연내 체결 목표(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함.
-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이 방안을 보고함.

■ **日 관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체결 목표(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과 관련, “조기체결을 목표로 논의한 뒤 협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27일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연말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
- 스가 장관은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향후 협의 상황에 따를 것”이라고 말함.

2016. 10. 28.

■ **아사히 “韓, 군사정보보호협정 11월 체결 목표...韓어론 중요”(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지난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과 관련,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11월 중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분석을 28일 전함.
- 아사히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1월 중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논의 재개를 10월 중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함.
- 이어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측 요청에 응한 형태가 됐다며 “한국은 11월 중이라도 체결할 생각인 것 같다. 한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함.

#### ■ 한일 첫 사이버정책협의회…북한발 해킹 대응 공조(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열어 북한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에 따르면 신맹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즈시마 고이치 외무성 사이버담당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사이버 공간상 국제규범 및 신뢰구축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한국은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총 11개국과 양자·3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이번에 처음으로 양자 협의회를 열었음.

## 라. 한·러 관계

2016. 10. 26.

#### ■ 모스크바서 ‘한-러 정경포럼’…북핵 해결방안 두고 열띤 논쟁(연합뉴스)

-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한-러 양국의 외교·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러 정경포럼’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개최됨.
-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러-한 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주관해 양국 정치·외교·경제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음.
- 한국 측 참가자들이 북한의 기존 핵·미사일 시험을 응징하고 추가적 핵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다른 제재 조치들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반면 러시아 측 참가자들은 제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역설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10. 22.

#### ■ 美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재개…中 “불법·도발” 반발(연합뉴스)

-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개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미국의 이런 제스처는 필리핀의 친(親)중국 행보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됐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의 중국 패소 판결에도 상대국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차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방침을 밝히고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정책 분리를 강조함으로써 외교적인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 재개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보임.

2016. 10. 24.

#### ■ 中, 美본토 위협 3세대 핵잠수함 건조중…2년후 실전배치(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2가지 형태의 3세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 2년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대만 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홍콩의 군사평론가 량귀량(梁國樑)은 중국은 현재 095형 수(隋)급 공격형 핵잠수함과 096형 당(唐)급 전략형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2년후 취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태평양을 오가는 미국의 핵잠수함 탐지 추적에 열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자국 핵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함.

2016. 10. 25.

#### ■ 미·중 이번주 ‘전략 안전 대화’…북핵·남중국해 논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전략 안전 대화를 개최해 북한 핵 개발 및 남중국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 이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회동이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블링컨 부장관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조율 방안과 함께 북한의 불안 야기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2016. 10. 26.

■ **중국, 미국국가정보국장 발언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 변함없어”(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국장의 북한 핵 능력 제한이 최선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임스 클래퍼 미국 DNI 국장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어떤 것에 의거해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 계획 포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함.
- 루캉 대변인은 “6자 회담이 실제로 북한의 핵 포기 행동을 취하게 했으나 6자 회담이 중단되면서 북한이 핵 보유로 갔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함.

나. 미·일 관계

2016. 10. 25.

■ **美 해군, F-35B기 탑재 상륙 강습함 내년 일본 배치(연합뉴스)**

-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긴급배치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 가능 장착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와스프급 대형 상륙 강습함을 내년 일본에 배치함.
- 미 해군함대전력사령부는 24일(현지시간) 개량작업을 마친 상륙 강습함 ‘와스프’의 모항을 미 동부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내년 일본 남부 사세보(佐世保) 항으로 옮겨 F-35B 전투기의 발진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미국은 모두 7척의 와스프급 상륙 강습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배수량 4만4천급 초대형 상륙 강습함전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아메리카급 상륙 강습함 건조에 들어감.

다. 미·러 관계

2016. 10. 23.

■ **英 일간 “러, 美 대선까지 대미외교 중단 결정 내렸다”(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차기 대통령과 보다 “진실된” 관계를 시작하려는 희망에서 적어도 미 대선까지는 미국과의 외교를 끊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런 결정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수개월에 걸친 외교적 노력을 산산이 조각냈다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모든 조율을 취소한 이후 나왔다고 신문은 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난함.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만약 미국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을 이유로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뭐가 됐든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함.

2016. 10. 27.

■ **러, 신냉전 상황서 차세대 ICBM 첫 공개…美 MD 무력화(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간에 신(新)냉전이 가시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고 프랑스 크기의 면적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으로 공개함.
- CNN, ABC 뉴스, 이타르 타스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가 최대 15개의 메가톤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의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지상 발사형 ICBM인 RS-28 사르마트(사탄2)을 최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게가 100t인 사르마트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SS-18의 개량형으로 1단계 추진을 위해 4개 묶음의 RD-274 로켓을 사용함. 최대 사거리가 6천835마일(1만1천km)인 사르마트는 또 최대 15개의 독립목표 재돌입탄두(MIRV)를 장착함.

2016. 10. 28.

■ **푸틴, 시리아사태 해결 위한 오바마와의 개인적 합의 무산 유감(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과 관련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합의가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명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국내외 러시아 전문가들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우리는 시리아에서 유혈을 멈추고 정치적 과정을 가동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오랫동안의 협상과 수많은 노력, 복잡한 타협으로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통합 전선이 구축되는 듯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 라. 중·일 관계

2016. 10. 23.

### ■ 산케이 “日, 위안부 소녀상 설치된 中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에 첫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외교통로를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3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함.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사범대 원위안(文苑)루 앞 교정에 한중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제막함.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탐탁지 않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함.

## 마. 중·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바. 일·러 관계

2016. 10. 27.

### ■ 日과 정상회담 앞둔 러시아, 18조원 넘는 경제협력 요청(연합뉴스)

- 오는 12월 일본과 정상회담을 앞둔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18조원이 넘는 경제협력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함.
-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로 1조7천억엔(약 18조 5천억원) 규모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최근 일본 측에 제안함.
- 극동개발부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1일 사전협의차 모스크바에서 열린 일본 경제산업성 측과의 협의에서 구체적 개발 계획을 제시함.

# III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10.23	케리, 북한은 불법정권...美 北국외노동자 인권우려 지속 제기(연합뉴스)
	10.25	유엔 北인권사무소 “北주민, 정권에 생존 기댈 필요없는 상황”(연합뉴스)
	10.26	미국무부, 北인권 강력비판 결의안 유엔 통과위해 긴밀협의(연합뉴스)
		美인권단체, 김정은 ICC 회부 백악관에 청원운동(연합뉴스)
		미국무부, 北인권유린 2차 제재대상 검토...12월 발표 희망(연합뉴스)
	10.27	北 반인도범죄 국제 모의재판, 12월 워싱턴서 개최(연합뉴스)
		北해외노동자 문제포함 인권결의안 초안 금주 상정(연합뉴스)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유엔서 北 핵개발 규탄(연합뉴스)
	10.28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확정...김정은 처벌 더 명확히 표현(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남북대화 촉구’ 삭제(연합뉴스)
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北군사력 증강에 주민 생계위협(연합뉴스)		
LA 타임스, 신상옥 최은희 납치 다큐 ‘연인과 독재자’ 소개(연합뉴스)		
‘북한인권 현인그룹’ 뉴욕서 회의...北인권개선 압박(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10.27	北, 유엔인권결의안 논란에 또 개입...종북모략 소동(연합뉴스) 北, 납북인사들 앞세워 ‘6.25 납북자기념관’ 착공 비난(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0.26	법원 “北수용소 가족 구해달라” 탈북자들 청구 각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0.26	REA “北 억류 입현수 목사, 건강 악화로 입원”(연합뉴스)
대북지원	10.23	北 수해로 이재민 30만명 발생...북한 발표보다 심각(연합뉴스)
	10.25	스웨덴, 北수재민에 47만 달러 지원하기로(연합뉴스)
	10.26	미 NGO 방북...수해지원 분배 확인, 간염 치료 목적(미국의소리)
		미국 한인들, 대북 제재로 수해 지원 모금 포기...재무부, NGO 통한 현금 지원 가능(미국의소리)
	10.27	유니세프, 다음달 北주민 생활환경 조사 착수(연합뉴스) 국내 민간단체, 北 수해지역에 대두 등 추가 지원(연합뉴스)
	10.28	국제적십자위원회, 北 주택복구 비용 50만 달러 지원(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0. 23.

#### ■ 케리, 북한은 불법정권…美, 北국의노동자 인권우려 지속 제기(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 국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이들의 임금전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힘.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사바 칼리드 알 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함.
-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23개국의 명단이 담긴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2016. 10. 25.

#### ■ 유엔 北인권사무소 “北주민, 정권에 생존 기댈 필요없는 상황”(연합뉴스)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25일 “이제 북한 주민은 더는 생존을 위해 북한 정권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함.
- 폴슨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모임 ‘포용과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한편, 지난 2004~2005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도 포럼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결석하거나 기권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 입장이 기권이 되면 우리가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도 힘들다”고 말함.

2016. 10. 26.

#### ■ 美국무부, 北인권 강력비판 결의안 유엔 통과위해 긴밀협의(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할 새 결의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힘.
-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미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또다른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다른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함.

- 올해에도 북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 ■ **美인권단체, 김정은 ICC 회부 백악관에 청원운동(연합뉴스)**

-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미국의 인권단체인 ‘노체인’은 RFA에 “미국 백악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청원운동을 전개해 북한 인권탄압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힘.
- 청원운동 시한은 30일이며, 10만 명이 서명하면 백악관과 해당 부처는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함.

#### ■ **美국무부, 北인권유린 2차 제재대상 검토…12월 발표 희망(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힘.
-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미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또다른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다른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함.
-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며,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는 제3위원회를 거쳐 총회 표결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쳐 왔음.

2016. 10. 27.

#### ■ **北 반인도범죄 국제 모의재판, 12월 워싱턴서 개최(연합뉴스)**

-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이 오는 12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모의재판은 세계변호사협회(IBA)와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 미국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IK)와 북한자유연합 등 10개 단체가 공동 주최함.

- 수재 솔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행사는 실제 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 **北해외노동자 문제포함 인권결의안 초안 금주 상정(연합뉴스)**

-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이번 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함.
- 결의안은 11월 하순 제3위원회, 12월 중순 유엔총회 전체 회의에서 각각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역과 노동력 착취 등에 관한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결의안 공동제안국 규모가 최소한 지난해 수준은 될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유럽연합과 일본을 포함해 총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 ■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유엔서 北 핵개발 규탄(연합뉴스)**

-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유엔을 무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함.
- 이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밝힘.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달 4일 발표된 북한인권법에 의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로 외교부에 설치됨.

2016. 10. 28.

#### ■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확정…‘김정은 처벌’ 더 명확히 표현(연합뉴스)**

- 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확정됨.
- 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 돼 공동 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감.
-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임.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남북대화 촉구’ 삭제(연합뉴스)

- 올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28일 파악됨.
-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가 북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남북’(inter Korean)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고 전함.
- 정부 당국자는 작년에 포함됐던 남북대화가 이번 결의안에 빠진 배경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치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함.

■ 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北군사력 증강에 주민 생계위협(연합뉴스)

- 지난 8월 취임한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 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 키타나 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연 이날 회의에서 키타나 보고관은 한반도 안보와 인권 문제가 직결돼 있다며 “군사력 증강은 북한 주민 수백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악화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함.

■ LA 타임스, 신상옥 최은희 납치 다큐 ‘연인과 독재자’ 소개(연합뉴스)

- 미국 서부 최대 일간지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고(故) 신상옥(1926~2006년)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최은희(90) 부부의 납북과 탈출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과 독재자’를 27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소개함.
- 이 신문은 ‘연인과 독재자’의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육성이 대담함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북한 정권의 심리 상태에 관한 드문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평함.
- 영국 출신 로버트 캐넌과 로스 애덤 감독이 연출한 98분짜리 다큐멘터리 ‘연인과 독재자’는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던 신상옥 최은희 커플의 만남부터 납북, 북한에서의 생활, 8년 후 목숨을 건 탈출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작품으로 지난달 22일 우리나라에서 개봉함.

■ ‘북한인권 현인그림’ 뉴욕서 회의…北인권개선 압박(연합뉴스)

- 북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제2차 전략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 인사들로 구성된 8명의 회원 가운데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행사에 참석함.
- 참석자들은 28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요청할 예정임.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0. 27.

### ■ 北, 유엔인권결의안 논란에 또 개입…종북모략 소동(연합뉴스)

- 북한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경위를 둘러싼 남한 내 최근 논란에 대해 “종북모략 소동”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불순한 속셈만 드러낸 종북모략소동’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보수 패거리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무지막지한 ‘종북’소동을 벌이고(벌이고) 있어 사회 각계를 경악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새누리당이 주요표적으로 삼은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 문재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음기(차기) 대통령 후보로 간주되고 있는 문재인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저들 패거리의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박근혜 역도의 부정부패 행위로 하여 청와대에도 쏠리는 민심의 이목을 딛 데로 돌려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이다”고 비난함.

### ■ 北, 납북인사들 앞세워 ‘6·25 납북자기념관’ 착공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전시 납북인사들을 앞세워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이 파주시 임진각에 세워질 예정인 점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함.
- 전시 납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의 대남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들은 얼마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그 무슨 ‘6.25전 시 납북자기념관’ 착공식이라는 것을 벌여놓았다”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극히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의거 납북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담화는 남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착공식 기념사를 겨냥해 “대결악담을 꺼리낌없이(거리낌없이) 췌쳐됐다(외쳐됐다)”,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려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0. 26.

#### ■ 법원 “北수용소 가족 구해달라” 탈북자들 청구 각하(연합뉴스)

- 탈북자들이 북한에 수용된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지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가족 4명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힘.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임.
-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북한 수용소와 관련한 인신구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0. 26.

#### ■ RFA “北 억류 임현수 목사, 건강 악화로 입원”(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가 최근 건강 악화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외무부는 임 목사가 건강 악화로 지난 8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가족들에게 알림.
- 그는 지난해 12월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무기노동교화형(중신노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임.

### 5. 대북지원

2016. 10. 23.

■ **北 수해로 이재민 30만명 발생…북한 발표보다 심각(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에 따른 이재민이 북한 발표의 4배 이상인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을 자주 오기는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라면서 이같이 말함. 정 실장은 “노동신문을 보면 수해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되는 최근까지도 복구가 한창이라는 기사가 실렸다”며 “이는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수해지역을 답사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도 지난달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번 홍수 피해는 50~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현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모두 파손됐다”고 전함.

2016. 10. 25.

■ **스웨덴, 北수재민에 47만 달러 지원하기로(연합뉴스)**

- 스웨덴 정부가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에게 47만 달러(5억3천여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전날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자국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힘.
- 이번 지원을 통해 올해 스웨덴 정부가 대북 구호사업에 지원한 액수는 총 260만 달러로 늘었음.

2016. 10. 26.

■ **미 NGO 방북...수해지원 분배 확인, 간염 치료 목적(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 간염환자 2백~3백여 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24일 방북 길에 올랐음.
-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소식지에서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개성 제2 간염병원 실험실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한인들, 대북 제재로 수해 지원 모금 포기...재무부, NGO 통한 현금 지원 가능(미국의소리)**

- 미국의 한인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다 초기에 중단했다고 이 단체의 박문재 수석부회장이 밝힘.
- 박 부회장은 태풍 라이언록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중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으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고 말함.
- 박 부회장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힘.
-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함경북도 지역에서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적어도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2016. 10. 27.

■ **유니세프, 다음달 北주민 생활환경 조사 착수(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다음 달 북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생이나 영양 상태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유니세프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앤드루 브라운 대변인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과 함께 다음 달부터 종합지표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과 이미 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지난 1995년 세계 각국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 생존율과 영양 실조율 등을 포함한 종합지표조사를 개발함.

■ **국내 민간단체, 北 수해지역에 대두 등 추가 지원(연합뉴스)**

- 국내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6일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 지역에 대두(콩) 45t(50kg짜리 900포대)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힘.
- 대두는 두유로 가공돼 수해지 어린이들에게 공급될 예정임.
- 이 단체는 지난 21일에도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지역에 비닐 장판 3만5천㎡를 중국 투먼(圖門)을 통해 전달함.

2016. 10. 28.

■ **국제적십자위원회, 北 주택복구 비용 50만 달러 지원(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주택복구 비용으로 써달라며 50만 달러(5억7천만 원)를 긴급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27일 발표한 ‘북한 홍수 긴급 대응 보고서’를 통해 “ICRC가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50만 스위스 프랑, 미화 50만 달러를 투입했다”면서 “이 자금은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지붕 자재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이 함경북도 수해지역에 주택을 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주택 2만 가구(채)를 짓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함.